

원재료는 관세환급, 제품은 FTA특혜로 경쟁력 UP!

1. 기업 소개

- H사는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일본계 투자기업으로 LED조명기구를 생산하여 EU지역으로 수출하는 회사로 국내 조명기구의 對체코 전체 수출액 중 약 80%를 차지

2. FTA 활용전 상황

- 경쟁심화 · 생산비효율 · 발주량 급감으로 국내 공장철수 위기
 - 누적적자 지속 및 생산비효율을 이유로 일본 본사가 한국지사 철수 압박
 - 체코 조명기구 시장에 국내 업체들이 신규 진출하면서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, 체코 구매자의 지속적인 제품가격 인하 요구로 공급처 상실 우려

3. 장애 요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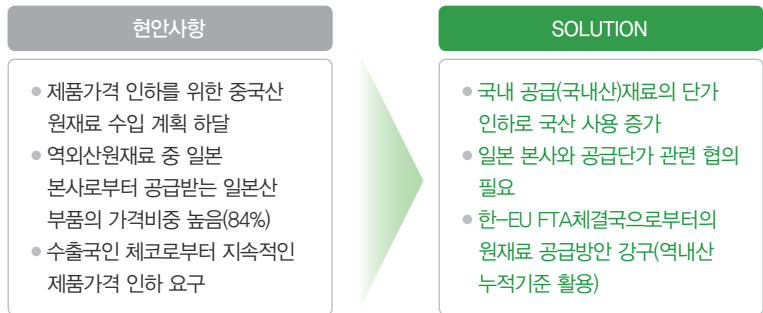
- 위기에서 부각된 FTA, 그러나 난항
 - (장애발생 1) 한-EU FTA 체결 이후 FTA활용을 위해 부서간 협업체제 구축을 위해 혁신추진팀을 구성하였으나, ①FTA이해부족, ②사내직원의 무관심, ③협력업체의 무지와 무관심, ④업무과중(인력부족), ⑤FTA협정위반 두려움 등으로 착수단계에서 어려움 봉착
 - (장애발생 2) 생산비 절감을 위해 기존 국내업체로부터 공급받던 주요 부품(Jumpwire, HeatSink, Diode)을 중국산으로 대체한다는 본사 입장 확인

▶ 품질저하 및 원산지결정기준(MC 50%)을 불충족하게 되는 부작용 발생

4. 극복 방법

- FTA 민·관 합동 솔루션팀의 해결방안 제시
- 생산비용 절감 대신, FTA를 활용한 수출 증가로 영업이익 증대 방안 모색을 위해 AA사의 한-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 내역(BOM, 원재료 등), 원산지결정기준인 MC 50%에서 **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등 세부내역 검토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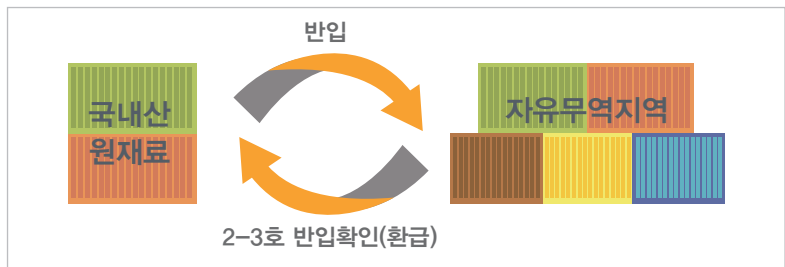
- 한-EU FTA활용 지원 회의에 도출된 현실적 해결 방안 마련



- 非원산지재료 비율 증가 시 한-EU FTA PSR인 MC 50%를 불충족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수출품의 원재료 변화 계획에 대해 관계자와 정보공유

▶ 시간·공간적 한계를 벗어난 의견교류시스템(Band) 신설

-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지위를 활용한 新모델 개발
 - 국내산 원재료를 값싼 외국산 원재료로 대체
 - 자유무역지역 반입 국내산 원재료가 환급받을 수 있는 모델 제시하여 환급가능한 국내산 원재료는 단가인하 협상이 가능함을 안내



- 국내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외국산 원재료는 직접 수입하는 방안 제시
- 물류 단계 축소로 외국산 원재료의 단가 인하 가능성, 과세보류 활용

5. 활용효과

- 수출경쟁력 확보 및 해외바이어 관세절감
 - FTA 활용 후 최근 1년간 USD 16.7만불* 관세절감 효과로 수출 경쟁력 향상
 - * '13년 8월 ~ '14년 7월, 對EU 수출액 USD 2,844,713 x 4.5%(체코 기준세율) = USD 166,656
 - 한국산 조명기구의 체코시장 점유율 획기적 상승(70.9% → 80.4%)
- EU지역 수출실적의 획기적 향상
 - 체코시장 수출액 51%증가와 더불어 체코 외 EU국가 신규시장 진출(미화 86만불, 전년 동기대비 104배 성장)로 숲 EU지역 95% 급증
- 제2의 전성기를 위한 재도약 발판 마련
 - 수출증대로 영업이익 적자폭 축소, 기업경쟁력 강화
 - 국내공장 존속가치 확보 및 종업원 117명의 일자리 유지

6. 시사점

- 외국인투자기업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라는 경영·입지환경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다양한 지원 모델 제시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및 해외신규시장 개척
- FTA 활용 지원방안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특수성을 감안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상시 피드백을 통해 FTA 혜택 향유 지원